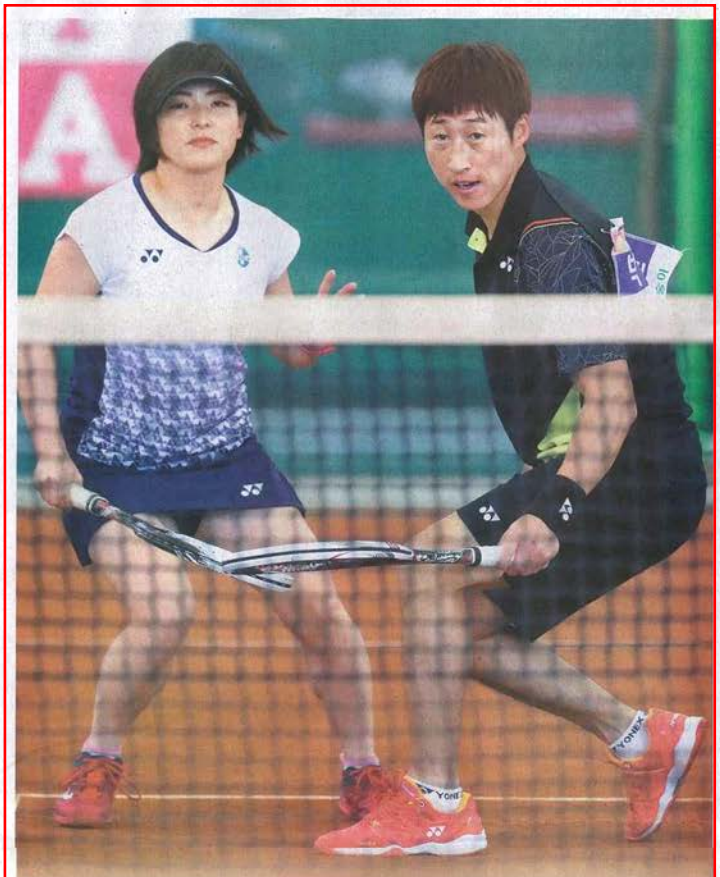

한국의 박환(음성군청·오른쪽)이 7일 경북 문경국제정구장에서 열린 제96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일본의 이시이 유라(와타큐 세이모아)와 짝을 지어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강덕구(서울시청)-송자연(문경시청) 조를 꺾고 혼합복식 1호 우승자가 됐다. 작은 사진은 우승한 뒤 손으로 V자를 그리며 기뻐하고 있는 박환과 이시이. 문경=최혁중 기자 sainman@donga.com

제비뽑기로 만난 한일 커플, 혼합복식 1호 우승

당신은 나의 '정구 로또'

음성군청 박환(31)은 혼합복식 대진표를 처음 받아 든 뒤 난감했다. 자신의 파트너로 낯선 일본 선수가 결정됐기 때문. 국내 정구 대회에서 혼합복식 파트너는 출전 선수 가운데 무작위 제비뽑기로 이뤄진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지만 박환은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며 한일 합작 초대 챔피언의 영광을 안았다. 박환과 일본 초청팀 와타큐 세이모아의 이시이 유리(27)가 그 주인공이다.

두 선수는 7일 경북 문경국제정구장에서 열린 제96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강덕구(서울시청)와 송자연(문경시청)을 3-0으로 완파했다.

국내 단일 종목 대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닌 이 대회는 1923년 여자부만으로 출범한 뒤 2006년 남자 선수에게 문호를 개방한 데 이어 올해 혼합복식이 신설됐다. 이로써 박환과 이시이는 혼합복식 1호 우승자가 됐다.

박환은 "처음엔 막막했지만 게임을 거듭할수록 손발이 잘 맞았다. 작은 키에도 탄력이 좋고 발리가 워낙 강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시이는 "정구 종주국 일본에도 90년 넘는 대회는 없다. 유서 깊은 무대에서 우승해 큰 영광이다. 음성군청 선수들이 열띤 응원을 해줘 고마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손잡이로 국내 남자 등록 선수 가운데 키(170cm)가 세 번째로 작은 박환은 서울시청 소속으로 뛰다가 강원 인제에서 포병으로 군복무를 했다. 2016년 제대 후 음성군청으로 둥지를 옮겨 지난해 12월 같은 충북 연고인 옥천군청 정구 선수인 이영정과 결혼했다. 정구 커플인 박환은 "요즘 집에서나 코트에서나 여자 정구 선수 덕분에 좋은 일이 생긴다. 내년 세계선수권 국가대표 선발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70cm 박환-148cm 이시이
동아일보기 신설종목 우승
단신이지만 네트플레이 능해
90년 넘는 대회 일본에도 없어
이시이 "내년에도 오고 싶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두 오빠의 영향으로 정구를 시작한 이시이는 일본의 명문 와세다대(인간과학부 전공)를 졸업했다. 일본 대학대표로 뛰었을 만큼 출중한 실력을 지녔다. 병원 물품 서비스 관련 실업팀인 와타큐 세이모아에서 6년째 뛰고 있는 그는 평일 오후 3시까지 사무직원으로 일하다가 퇴근 후 오후 7시까지 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는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이시이는 "단신(148cm)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 플레이를 미리 간파하고 빨리 움직이는 동작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주인식 문경시청 감독은 "두 선수 모두 키는 작아도 탄탄한 기본기를 갖췄다. 스트로크와 네트 플레이, 서브 등이 고르게 강해 궁합이 잘 맞았다"고 말했다. 트와이스와 빅뱅 팬이라는 이시이는 "내년에도 동아일보대회에 꼭 다시 오고 싶다"며 웃었다.

문경=김종석 기자 kjs0123@donga.com

바르사 무패우승, 큰 산 넘었다

1명 퇴장 열세에도 레알과 비겨
라리가 최초 위업, 3경기 남아

이제 '무패 우승'까지 단 세 걸음 남았다.

바르셀로나(바르사)가 7일 안방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숙적 레알 마드리드(레알)와의 '엘클라시코'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26승 9무로 이번 시즌 프리메라리가에서 무패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바르사가 남은 세 경기에서도 무패를 이어가면 38라운드 체제(1987년) 이후 스페인에서 그 어느 팀도 써보지 못한 대업을 기록하게 된다.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도 프리미어리그 아스널(2003~2004시즌)과 세리에A의 AC밀란(1991~1992시즌), 유벤투스(2011~2012시즌)만이 1990년 이후 무패 우승의 위업을 이뤘다.

양 팀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경기 시작 전 레알은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한 바르사에 '가드 오브 아너(Guard of Honour·우승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설 때 상대팀이 2열로 서서 박수를 쳐주는 것)'를 거부했다. 레알은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바르사가 직후 경기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는 이유를 들며 바르사를 자극했다.

경기도 박빙이었다. 양 팀 에이스인 리오넬 메시(후반 7분·바르사)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전반 14분·레알)가 한 골씩을 넣으며 기세 싸움을 벌였다. 여기에 루이스 수아레스(전반 10분·바르사)와 가레스 베일(후반 27분·레알)도 득점하며 어느 한 팀에 승부가 기우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전반 추가시간 바르사의 세르지 로베르토가 퇴장을 당하는 변수가 생겼지만 바르사는 집중력을 발휘해 팀 패배를 막아냈다.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왼쪽)가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안방경기에서 후반 7분 골을 넣은 뒤 루이스 수아레스와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바르셀로나=신화 뉴시스

이날 레알과의 최대 라이벌전은 바르사 대기록 작성의 가장 큰 난관이었다. 바르사는 비야 레알(10일·6위), 레반테(14일·17위), 레알 소시에다드(20일·11위) 등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를 남겨 두고 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투톱 출격 권창훈, 10호골 펄펄

갱강전 선제골 이어 결승골 도움
최근 두 경기 최전방 나서 맹활약
신태용호 공격전술 폭 넓어져

권창훈(24·디종)이 '신태용호'의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을까. 2018 러시아 월드컵을 한 달여 앞둔 7일 권창훈이 프랑스 리그1에서 한 시즌 두 자릿수 득점 고지에 올라섰다. 특히 이날 권창훈은 주 포지션인 측면 공격수가 아닌 투톱 공격수로 나서 골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손흥민(26·토트넘)과 짝을 이룰 최전방 공격수를 찾던 신태용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에게 권창훈은 새로운 옵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창훈은 이날 프랑스 디종의 스타드 가스통 제라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강과의 안방 경기에 나임 슬리티(26)와 함께 4-4-2 포메이션의 투톱으로 출격해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쳐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34분 선제골을 잡아낸 데 이어 후반 20분 세드릭 얌베켜의 결승골까지 도왔다.

이날 10호 골을 쏘아 올린 권창훈은 박주영(33·FC서울)에 이어 7시즌 만에 리그1 한 시즌 10득점 이상을 기록한 한국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2010~2011시즌 당시 AS모나코에서 뛰던 박주영은 12골을 넣었다. 유럽 축구 무대로 따지면 차범근, 설기현, 박주영, 박지성, 손흥민, 석현준, 황희찬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8번째로 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프랑스 리그1 디종에서 활약하고 있는 권창훈이 디종의 스타드 가스통 제라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강과의 경기에서 전반 34분 선제골을 잡아낸 데 이어 후반 20분 세드릭 얌베켜의 결승골까지 도우며 1골 1도움으로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리그1 홈페이지 캡처

주로 오른쪽 윙어로 경기에 나서던 권창훈은 보르도전에 이어 최근 두 경기 연속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맹활약했다. 권창훈은 신태용호에서 오른쪽 윙어로 활용됐다. 신 감독이 4-4-2 전술을 쓸 경우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이근호(강원) 김신욱(전북) 황희찬(잘츠부르크) 등이 손흥민의 '투톱 파트너'로 거론돼 왔다. 권창훈이 13일 웹과 20일 암제 등 두 경기에서도 최전방에서 활약한다면 신 감독에겐 새로운 공격 전술 시나리오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스포츠 단신

'뜨거운 4월' 4할 타자 유한준, 첫 월간 MVP

'뜨거운 4월'을 보낸 유한준(37·KT·사진)이 생애 처음으로 프로야구 월간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4월 MVP로 유한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한준은 3월 24일 개막 이후 4월 한 달간 총 29경기에 나서 4할 타율(0.447)로 타율 1위를 이어간 것은 물론 안타(46개), 장타율(0.757), 출루율(0.491)에서도 모두 리그 1위를 차지했다. 유한준은 지난달 19일 4할 돌파 이후 6일 현재까지 타율 0.407로 타율 1위를 지키고 있다.

마라톤 간판 김도연 종별육상 1만m 2연패

'한국 여자 마라톤의 간판' 김도연(25·K-water·사진)이 7일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7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1만 m 결선에서 33분39초83을 기록해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2005년 이은정이 세운 한국 기록(32분43초35) 경신에는 실패했다. 3월 열린 2018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9회 동아마라톤에서 2시간25분41초를 기록해 21년 묵은 여자 마라톤 한국 최고기록을 경신한 김도연은 5000m(15분34초17)와 하프마라톤(1시간11분00초) 한국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